

피해 소송 승산있다

체결성 배상 청구활동에 힘실려

포들도 가세 비쳐 내달 27일로 잡혀

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기업들을 상대로 한 유대인들의 배상소송을 맡아 내달 30일 사실상의 승소에 따른 배상합의를 완전 종결짓게 될 피셔 변호사는 “지난주 한국을 방문, 정신대 할머니 등 피해자 단체들과 만나 소송협조를 약속받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도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여론화해 지지를 얻어내는 정치·사회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며 피해자 단체의 조직적 활동과 정계·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상소송은 현재 징용보상 가

주특별법에 근거, 주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변호팀은 “담당 판사 앞에서 상대방 변호인측과의 일차 사전 심리가 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혀 배상청구 소송이 그

동안의 서류상 공방에서 실제 법정으로 옮겨지는 법정싸움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이강대 한인연합회장은 “일제의 억압적 장치들로 인해 고통당한 모든 한인들의 뜻을 모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임원진과 회칙을 구성하고 ▲응징적 배상 실현 ▲역사정의 실현 ▲민족적 연대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경호 기자

<ckho@joongangusa.com>

